현대 자동차 그룹의 자기업과 아웃소싱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해 왔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자기업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자기업에는 사진과 같이 철강, 건설, 부품, 금융, 기타 등의 많은 자기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현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자기업과 아웃소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현대 자동차의 차체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차체에 필요한 자기업은 현대제철, 현대 비엔지스틸, 현대 스페셜 스틸 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다 제철에 관련된 것인데요

하지만 자동차의 범퍼는 플라스틱 범퍼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에 아웃소싱을 맡겨 !제네시스 !산타페 ! 아반떼 등 많은 자동차의 범퍼를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현대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자기업입니다.

주로 미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현대 모비스

엔진, 모듈 제작하는 현대 위아

친황경 기술, 수소차 기술 연구, 자동변속기를 제작하는 현대 케피코

파워트래인을 제작하는 현대 트랜시스

차량의 시트를 제작하는 현대 엠시트

차량의 렘프 제작하는 현대 아이에이치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타이어 제작회사로 유명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코 코모스가 있습니다.

세코 코모스는 휠커버 허브캡 콘솔 등을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아웃소싱 특징으로는 핵심 부품들이나 소프트웨어같이 중요한 부분은 자기업에 맡기고 나머지 작은 부품들을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